

메시·호날두 43골 공동선두

라리가…레알, 세비야 꺾고 우승 눈앞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시즌 43호 골로 세비야를 제압한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가 우승컵에 바짝 다가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1-2012 프리미어리가 36라운드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겼다.

29승4무2패, 승점 91을 작성한 레알 마드리드는 2위 FC바르셀로나(26승6무3패·승점 84)에 승점 7점 차 선두를 지켰다.

5월2일 열리는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레알 마드리드는 2008

년 이후 4년 만에 리그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다.

조제 무리뉴 현 감독이 2010년 사령탑에 오른 후 처음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초반부터 세비야를 강하게 몰아붙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전반 19분 호날두가 페널티 박스 왼쪽 코너에서 카림 벤제마가 빠준 볼을 받아 강한 슛으로 세비야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

벤제마는 후반 4분 세비야의 공을 빼앗아 추가 골을 만들었고 4분 뒤에는 세르히오 라모스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받아 팀에 세 번째 골을 안겼다.

한편 호세 펠 카르디올라 감독이 사임 의사를 밝힌 FC바르셀로나는 라요 바예카노를 7-0으로 대파했다.

3경기에서 침묵을 자킨 리오넬 메시는 이 날 2골을通过对 호날두(43골)와 나란히 정규 리그 득점왕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전반 16분 팀에 첫 골을 선사한 메시는 후반 45분 팀에 마지막 골을 장식해 대승을 마무리지었다.

정규리그 4경기를 남기고 이번 시즌 총 65개의 골을 뽑았던 메시는 1972-1973 시즌 바이에른 뮌헨 선수 시절 게르트 월러가 세운 유럽 한 시즌 통산 개인 최다 골 기록(67골)을 넘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오른쪽)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발레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요 바예카노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페드로 로드리게스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레스 '완벽 부활'

2년만에 해트트릭

첼시, 퀸스파크 레인저스에 6대 1 대승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첼시의 페널티 킴벌리(28)가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정규리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레스는 지난 29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1-2012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퀸스파크 레인저스를 상대로 세 골을 쏟아부어 팀의 6-1 승리를 이끌었다.

이어 후반 19분에 후안 마티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안쪽 쪽으로 코너에서 골망을 흔드는 슈팅을 날려 2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3골을 터뜨린 토레스의 활약에 힘입어 승점 3점을 챙긴 첼시는 17승10무8패(승점 61)로 리그 6위 자리를 지켰다.

25일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FC바르셀로나에 경기 막판 빠아픈 동점 골을 안긴 토레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정규리그에서도 펄펄 날아다녔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금1 동2

전국체고 체육대회

광주체고 사격부가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금1, 동2개를 획득했다.

광주체고 김용경(3년)이 지난 30일 창원에서 열린 제2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여고부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501.1점을 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용경은 단체전에서 정지영·백현진·송승주와 함께 1174점을 만들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서울체고와 경북체고가 단체전 1·2위를 기록했다. 남고부 공기권총 개인전에 출전한 김영진(2년)은 667.2점을으로 충남체고 최영찬(669.2점)과 전남체고 고은석(668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메시 잘했어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오른쪽)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발레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요 바예카노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페드로 로드리게스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생활체육 풍성하네

전남도지사기 볼링대회·전국 골프대회 등 다양

전남도생활체육회가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함께 풍성한 5월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4일 해남에서 개막해 3일간의 열전에 돌입 한다.

19일에는 전남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생활체조경연대회가 보성다향재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며, 순천시생활체육대축

전이 19일과 20일 팔마체육관 등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광양에서 제1회 전남연합회 장배 생활체육 윈드서핑대회의 막이 오른다.

전국대회도 잇달아 열린다.

전남도생활체육회 선수단은 1일 합천

에서 개막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그라

운드골프대회에 참가해 5월 전국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5·6일에는 정읍에서 전국당구대회, 16~18일에는 합천에서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열린다. 26·27일에는 전남 축구 동호인들이 창원을 찾아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대회에 참가한다.

11일에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대전에서 개막한다.

전남도생활체육회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축전에 830명의 선수단을 파견, 32개 정식 종목과 5개 장애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월23일(수)

전남도지사기 볼링대회·전국 골프대회 등 다양

전남도생활체육회가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함께 풍성한 5월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4일 해남에서 개막해 3일간의 열전에 돌입 한다.

19일에는 전남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생활체조경연대회가 보성다향재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며, 순천시생활체육대축

전이 19일과 20일 팔마체육관 등에서 진 행된다.

26일에는 광양에서 제1회 전남연합회

장배 생활체육 윈드서핑대회의 막이 오른다.

전국대회도 잇달아 열린다.

전남도생활체육회 선수단은 1일 합천

에서 개막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그라

운드골프대회에 참가해 5월 전국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5·6일에는 정읍에서 전국당구대회, 16~18일에는 합천에서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열린다. 26·27일에는 전남 축구 동호인들이 창원을 찾아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대회에 참가한다.

11일에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대전에서 개막한다.

전남도생활체육회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축전에 830명의 선수단을 파견, 32개 정식 종목과 5개 장애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월24일(목)

전남도지사기 볼링대회·전국 골프대회 등 다양

전남도생활체육회가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함께 풍성한 5월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4일 해남에서 개막해 3일간의 열전에 돌입 한다.

19일에는 전남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생활체조경연대회가 보성다향재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며, 순천시생활체육대축

전이 19일과 20일 팔마체육관 등에서 진 행된다.

26일에는 광양에서 제1회 전남연합회

장배 생활체육 윈드서핑대회의 막이 오른다.

전국대회도 잇달아 열린다.

전남도생활체육회 선수단은 1일 합천

에서 개막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그라

운드골프대회에 참가해 5월 전국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5·6일에는 정읍에서 전국당구대회, 16~18일에는 합천에서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열린다. 26·27일에는 전남 축구 동호인들이 창원을 찾아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대회에 참가한다.

11일에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대전에서 개막한다.

전남도생활체육회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축전에 830명의 선수단을 파견, 32개 정식 종목과 5개 장애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월25일(금)

전남도지사기 볼링대회·전국 골프대회 등 다양

전남도생활체육회가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함께 풍성한 5월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4일 해남에서 개막해 3일간의 열전에 돌입 한다.

19일에는 전남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생활체조경연대회가 보성다향재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며, 순천시생활체육대축

전이 19일과 20일 팔마체육관 등에서 진 행된다.

26일에는 광양에서 제1회 전남연합회

장배 생활체육 윈드서핑대회의 막이 오른다.

전국대회도 잇달아 열린다.

전남도생활체육회 선수단은 1일 합천

에서 개막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그라

운드골프대회에 참가해 5월 전국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5·6일에는 정읍에서 전국당구대회, 16~18일에는 합천에서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열린다. 26·27일에는 전남 축구 동호인들이 창원을 찾아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대회에 참가한다.

11일에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대전에서 개막한다.

전남도생활체육회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축전에 830명의 선수단을 파견, 32개 정식 종목과 5개 장애우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월26일(토)

전남도지사기 볼링대회·전국 골프대회 등 다양

전남도생활체육회가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함께 풍성한 5월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가 4일 해남에서 개막해 3일간의 열전에 돌입 한다.

19일에는 전남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생활체조경연대회가 보성다향재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며, 순천시생활체육대축

전이 19일과 20일 팔마체육관 등에서 진 행된다.

26일에는 광양에서 제1회 전남연합회

장배 생활체육 윈드서핑대회의 막이 오른다.

전국대회도 잇달아 열린다.

전남도생활체육회 선수단은 1일 합천

에서 개막하는 국민생활체육 전국 그라

운드골프대회에 참가해 5월 전국대회